

《타사의 정원》 《행복한 사람, 타사 튜더》

마음의 버몬트를 찾아가는 여정

글_장동석 기자

미국 버몬트, 그 땅은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스코트와 헬렌 니어링이 1932년 버몬트의 넓은 농가에 정착했고, 지금은 타사 튜더가 그곳에 산다. 그리고 수많은,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과 함께 삶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떠날듯 버몬트로 향하곤 한다. '서울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을 때, 가보지도 않은 '미국인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버몬트를 생각했다. 아마도 《스콧 니어링 자서전》을 읽을 때였지 싶다. 밥벌이에 치여 서울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의 끝자락도 기억하지 못할 때, 다시 버몬트를 생각했다. 말로만 전해 듣던 타사 튜더의 삶을 책으로 만났을 때였다. 《행복한 사람, 타사 튜더》와 《타사의 정원》은, 그렇게 자연과 삶을 생각하는 끈을 다시금 연결해 주었다.

누군가의 말마따나 타사 튜더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영혼'이다. 영혼뿐 아니라 90이 넘는 늙고 자그마한 육신마저도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다. 타사 튜더는 30만 평이 넘는 아름다운 정원을 도움 없이 혼자서 건사하며, 19세기 생활을 좋아해서 골동품 옷을 입고 골동품 가구와 그릇을 쓰고 장작을 지피는 스토브로 음식을 해먹는다. 21세기를 살고 있거나 20세기도 아닌 19세기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래도 그녀는 행복하다. 90년을 넘게 살았으니 세상 풍파에 휩쓸린 것을 손가락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 텐데도 그녀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온전히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난 행복이란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천진스럽게 말한다. 또한 아주 조용한 음성이지만,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렇다고 그 메시지가 현대인들을 질타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오로지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을 뿐이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카모마일 차를 마시고 저녁에 현관 앞에 앉아 개똥지빠귀의 고운 노래를 듣는다면 한결 인생을 즐기게 될 텐데."

생각해 보면,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얼마나 되었던가. 자욱한 공해로 인해 밤하늘 별이 안 보인다고는 핑계하지 말자. 그 우중충한 하늘이라도 자꾸 올라다 보면, 별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단지 저녁에 현관 앞에 앉아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개똥지빠귀의 고운 노래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일 뿐이다. 그녀가 내게 주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자족'이다. "바랄 나위 없이 삶이 만족스러워요. 개들, 염소들, 새들과 여기 사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답니다"라고 말하는 그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말처럼 "자신 있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상상해온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라면,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만날 것이다." 그녀는 그녀만의 정원에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과 날마다 조우하고 있는 셈이다.

일상의 행복과 조우하는 타사 튜더도 오만해질 때가 있다. 바로 그녀의 장미에 대한 사랑을 표할 때다. "내 유서 깊은 장미에 대해서는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천국처럼 아름답죠." 사실 그녀의 정원은 일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비밀의 화원' 과도 같다. 타사의 정원을 5월에 밟아본 사람들은 "레몬빛 수선화 무리 속에서 흰색 돌능금꽃이 피는 5월이면 정원은 지상 낙원이 된다"고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냥 저대로 자란 거예요. 뒤죽박죽"이라고 타사는 이야기하지만 그곳은 자연을 존중하고 삶을 사랑하는 타사 튜더의 낙천성과 부지런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공간이다.

이 땅을 지키면서 사는 농부들은 "땅은 배신을 모른다"고 말한다.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보답을 한다는 게다. 타사의 정원도 어찌 "그냥 저대로 자란 거"였는가. 나무 한 그물, 풀 한 포기, 생명을 품을 줄 아는 이가 마음과 정성으로 키운 것이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서울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또 다시 슬그머니 마음에서 일어날 때면, 그때 버몬트로 향해야겠다. 그러나 어디, 미국 버몬트에만 자연이 있고, 삶이 있겠는가.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차 한 잔의 여유와 아련하게 들러올 개똥지빠귀의 노래 소리에 귀 기울이면, 거기가 바로 버몬트 아니겠는가. **44**



《타사의 정원》
타사 튜더·토바 마틴 지음 | 리처드 브라운 사진 | 공경희 옮김
월북 | 227쪽 | 값 12,000원
《행복한 사람, 타사 튜더》
타사 튜더 지음 | 리처드 브라운 사진 | 공경희 옮김
월북 | 189쪽 | 값 9,800원